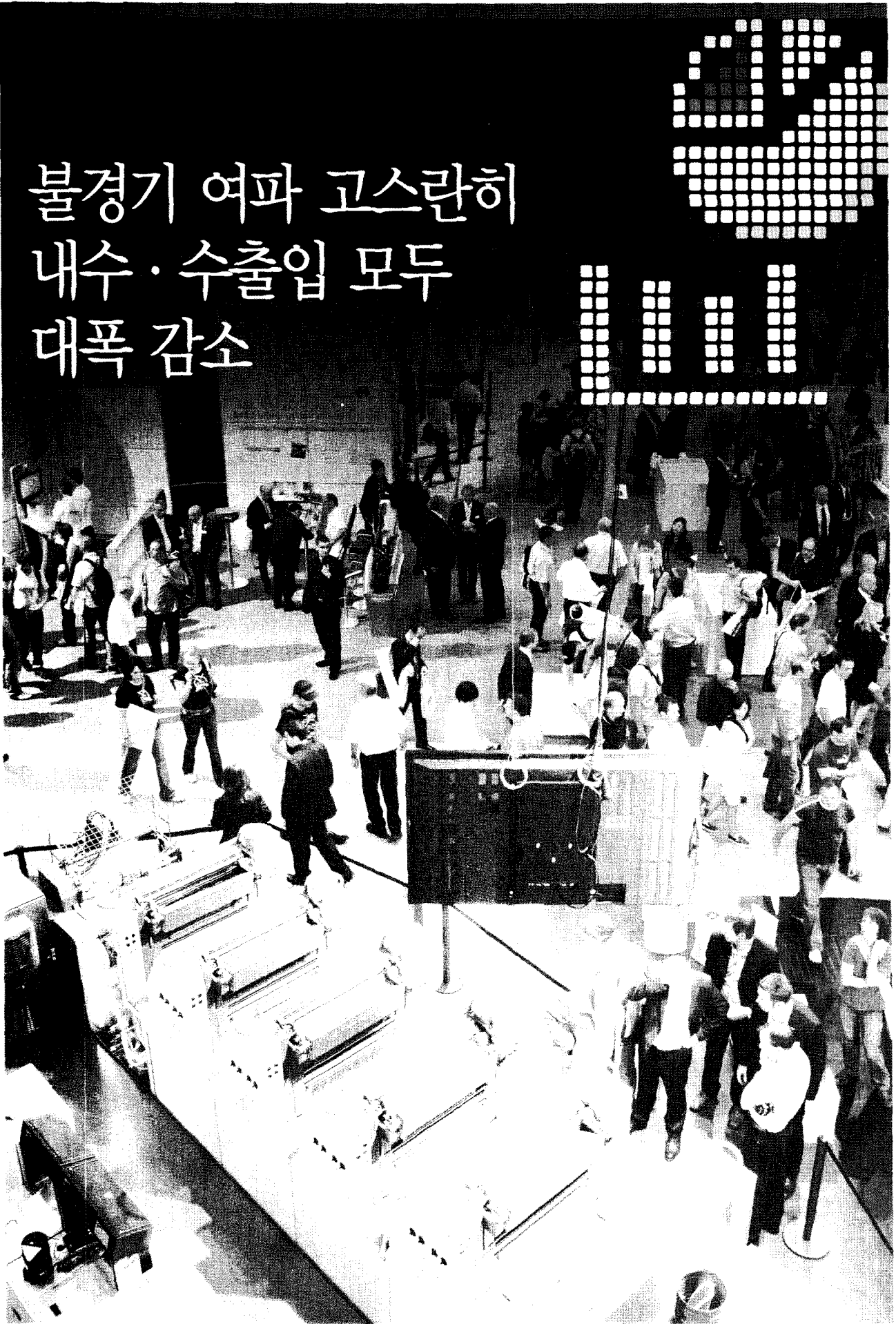


# 불경기 여파 고스란히 내수·수출입 모두 대폭 감소



2009년 상반기 인쇄업계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으며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내수경기와 수출입 모두 대폭적인 감소를 보이는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2009년도 BSI 통계에 따르면 출판·인쇄업은 지난해에 비해 올 상반기는 거의 전 부문에서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완전한 바닥을 보인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언제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인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전망치의 경우, 1~2월에 44, 48의 최저 수준에 도달한 이후 3월 50, 4월 59, 5월 60, 6월 68, 7월 62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년도 상반기에 보여준 59~8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올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42~3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인지 회복될 것인지에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위로를 주는 수치는 실적치로 1, 2월의 44~7에서 벗어나 3월 62, 4월 57, 5월 69, 6월 64로 전년 하반기에 비해 나아지는 것으로 밝혀진 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실적은 전년 상반기에 보였던 63~8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생산지수는 중소기업 평균이 90.1(2월)~101.5(4월)를 기록한데 비해 인쇄업은 89.6(5월)~98.1(1월)을 인쇄업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3월 이후 중소기업 평균이 회복기미를 보이는데 비해 인쇄업은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물적노동생산성지수도 제조업이 110.9(2008년 4/4분기)~125.7(2008년 2/4분기)을 보이는데 비해 인쇄업은 82.7(2008년 3/4분기)~114.4(2008년 1/4분기)로 대체적으로 낮은 추이를 나타냈으며 4/4분기의 계절적인 수치 반등 이후 다시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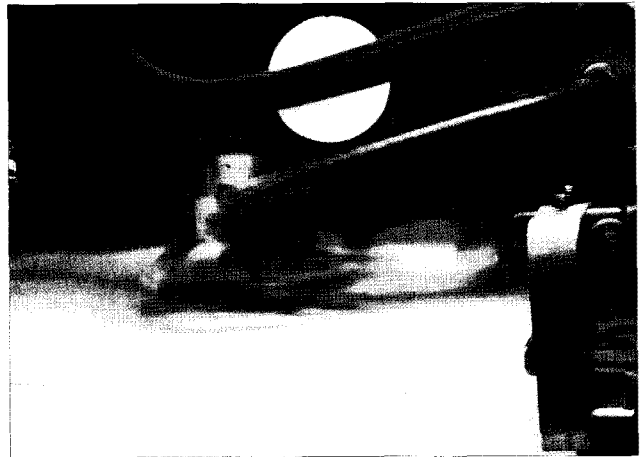
한편 채산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단위노동비용지수는 전체제조업이 88.5~105.3을 보이는데 비해 인쇄업은 94.0~110.3에 머물러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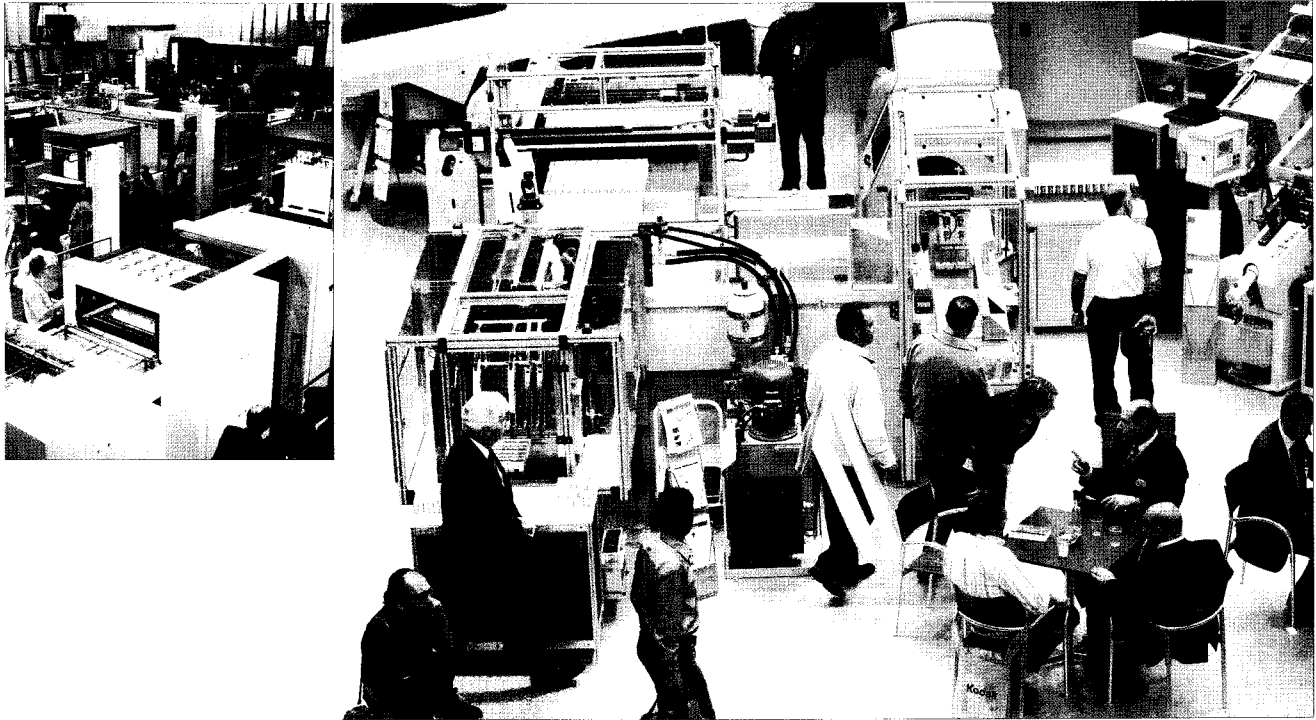
#### 인쇄물 수출입 각각 5.8%·9.0% 감소

관세청이 집계한 따르면 2009년 상반기 인쇄물 수출실적은 1억1913만1천 달러를 기록, 지난해 동기 1억 2647만2천에 비해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물 수입액도 1억 7022만 달러에 그쳐 지난해 실적인 1억8814만1천 달러를 크게 밑돌며 9.0%의 큰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오랜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던 인쇄물 수출입이 다시 감소로 돌아선 것이며 수입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전형적으로 불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수출입동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인쇄물수출동향이 상반기 동안 최저 -60.9%~8.1%의 큰 변화를 보인 가운데서도 평균 10%대의 감소율에 머문데 비해 인쇄기자재의 수입은 -23.1%~-51.0%의 극심한 감소세를 보여 인쇄업도 불황에 따른 수입의 감소라는 전형적인 불경기의 현상이 재현되었다.

한편 인쇄기자재 수출실적은 6억429만 달러를 기록, 전년도의 8억296만 달러에 비해 24.7%라는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수입실적도 전년도의 9억6651만6천 달러에 비해 6억1459만9천 달러에 그쳐 36.4%의 대폭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 수출, 대부분 품목 감소세 면치 못해

인쇄물 수출실적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물량이 수출되는 품목은 인쇄서적, 소책자, 전사물과 리플렛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로 드러났다. 인쇄서적, 소책자는 4664만9천 달러를 기록, 올해 상반기 최대수출품목의 자리를 지켰으나 전년도 상반기의 1억854만5천 달러에 비하면 절반이하 수준에 그쳤으며 57.0%의 감소율을 보였다.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도 294만 달러에 그쳐 전년 동기 실적인 348만 달러보다 15.5% 감소했고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은 116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실적인

148만4천 달러보다 21.8% 줄었으며, 우표, 수입인지, 기타 유가증권은 3만 달러 수출되는데 그쳐 전년 동기 실적 1만4천 달러보다 100% 이상 증가했으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아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기타인쇄물은 전년 동기 실적인 1683만1천 달러보다 크게 증가한 4545만5천 달러를 기록했으나 단발성 수출 증가에 의존한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증가로 단정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설계도와 도안은 64만5천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실적인 51만8천 달러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해 큰 의미는 부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캘린더는 1209만3천 달러를 기록하며 단일품목으로는 2번째 수출실적을 올렸으나 전년 동기 1490만2천 달러에 비해서는 18.8% 감소를 보였다. 한편 전사물은 626만5천 달러를 수출, 전년 동기 수출액 775만1천 달러에 비해 19.2%의 감소율을 보였다.

#### 인쇄기 수입, 수출 모두 대폭적인 감소세 보여

인쇄기의 수입액과 수출액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대폭적인 감소세를 기록했다. 수출의 경우 지난해 7억5861만2천 달러에서 5억7156만8천 달러로 24.7%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수입은 지난해 9억1081만8천 달러에서 5억9197만5천 달러를 기록, 35%의 대폭적인 감소세를 나타냈다. 제지용

상반기 인쇄물 수출입 실적

구분	인쇄물 수출		증감	인쇄물 수입		증감
	2008	2009		2008	2009	
인쇄서적, 소책자	79,373	46,649	-41.0	108,545	95,803	-11.7
신문 잡지	3,480	2,940	-15.5	11,175	8,929	-20.0
아동용의 그림책	1,484	1,160	-21.8	10,287	7,856	-23.6
약보	0	15	150	921	867	-5.9
지도, 해도	204	166	-18.6	2,383	1,810	-24.0
설계도와 도안	398	645	62.1	518	652	26.0
우표, 수입인지	14	30	114.3	1,773	14,928	742.0
전사물	7,751	6,265	-19.0	23,210	19,727	-15.0
인쇄된 엽서	2,035	3,713	83.0	2,445	1,917	-21.6
캘린더	14,902	12,093	-18.9	183	180	-1.6
기타인쇄물	16,831	45,455	170.1	26,701	17,551	-34.0
합계	126,472	119,131	-5.8	188,141	170,220	-9.0

상반기 인쇄기자재 수출입 실적

구분	인쇄기자재 수출		증감	인쇄기자재 수입		증감
	2008	2009		2008	2009	
제책기계	3,293	2,125	-35.5	17,655	6,408	-63.7
제지용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용 기계	38,629	29,405	-23.9	24,649	8,575	-65.2
환자의 주조용, 식자용 기기 및 부분품	1,952	829	-57.0	10,485	5,997	-42.8
인쇄기	758,612	571,568	-24.7	910,818	591,975	-35.0
인쇄제판카메라	0	12	120	852	47	-94.0
제판용롤상필름현상기	474	351	-25.9	2,057	1,597	-22.4
합계	802,960	604,290	-24.7	966,516	614,599	-36.0

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용 기계는 수출이 전년 실적인 3862만 9천 달러에서 2940만5천 달러로 23.9%감소했으며 수입은 전년 실적인 2464만 9천 달러에서 857만5천 달러로 65.2%의 대폭적인 감소율을 기록했다.

제책기계는 2008년 실적인 329만 3천 달러에서 212만5천 달러 35.5%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수입은 전년 상반기 실적인 1765만5천 달러에서 절반이하의 실적인 640만8천 달러를 기록하며 63.7%의 감소를 기록했다. 제책기계의 수입은 금액면에서도 1124만7천 달러의 큰 감소액을 보였다. 환자의 주조용, 식자용 기기 및 부분품은 수출은 전년 195만 2천 달러에서 82만9천 달러로 절반 이하로 대폭적인 감소를 기록했고 수입도 전년의 실적인 1048만5천 달러에서 599만7천 달러를 기록, 67.5%에 달하는 대폭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인쇄제판용 카메라의 수출은 지난해 무실적을 기록한데 비해 1만2천 달러의 실적을 올렸으나 적은 금액이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입은 전년 실적인 85만 2천 달러에서 4만7천 달러 90%이상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이 역시 절대적인 금액이 적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쇄제판용 롤상필름 자동현상기기는 지난해 40%의 감소율을 보인데 이어 올해도 25.9% 감소한 35만1천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도 전년의 205만7천 달러에서 159만7천 달러로 22.4% 감소했다. 그동안 통계에 포함되어 있던 사진필름 등은 물량 감소 등의 이유로 항목에서 제외되었다. G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

